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사랑의 세 가지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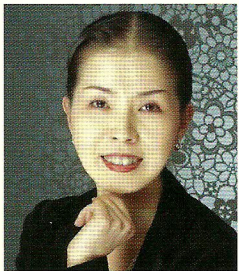
서정숙의 그네

이현주의 다소다

오숙례의 하얀 이별

2007. 8. 23(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안무 서정숙

-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개인공연 <서정숙의 춤> (2002.8 /국립민속박물관)
- 창작무용<생의 두갈래>, <비천>, <인어의 숲> 안무, 출연
- 창작무용<까치와 장승> 안무
- 현, 부산시립무용단 총무

그네

아침이면 새벽을 지고 나가
저녁엔 어둠을 지고 들어오는 아버지는, 다시
지쳐 늘어진 딸다리 뺏어 자식들을 감싸 안는 그네가 되셨다.
크고 단단하셨던 아버지.

당신에게도 닿고 싶은 곳이 있으셨으려면
이제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그 두터운 가슴팍엔
아무도 타려 하지 않는 그네의 못자국만 남았다.

당신은 얼음이셨다.
찬바람에 다칠라 제 몸 열려
여린 자식들 맑게 흐르도록 칼바람 막아 주던.
이제, 흘러가는 자식들에게 살점 다 내어주고
작아진 어깨 추슬러 다시 그네를 매신다.
마른 등짝으로 가벼이 하늘 향해 몰라 앉으셨다.

대본 · 무대미술 : 하현관 「사람(Human Projector)」 대표

의상 : 엄지은 음악 : 김갑용

출연 : 서정숙, 하현관 스태프 : 김동숙, 이현숙

다소다

누구나 운명적인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운명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거대한 운명이 아닐지라도 일상과 마주한 사랑에 고개를 주억거릴 수 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다. 벽돌을 쌓듯 하나하나 만들어간 신뢰가 어느덧 생활의 테두리가 되었다. 웃음 가득한 시간은 생활의 밑거름이 되고 마찰음을 내며 보낸 시간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화려한 형용사로 수식할 필요 없다. 사랑일 뿐. 그대와 함께 하는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 '다소다'는 '사랑하다'의 순우리말.



안무 이 현 주

-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과정 中
- 창작무용 <절로 부는..> <선묘화> 안무, 출연
- 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대본 : 권희영 (창원대, 진주국제대 시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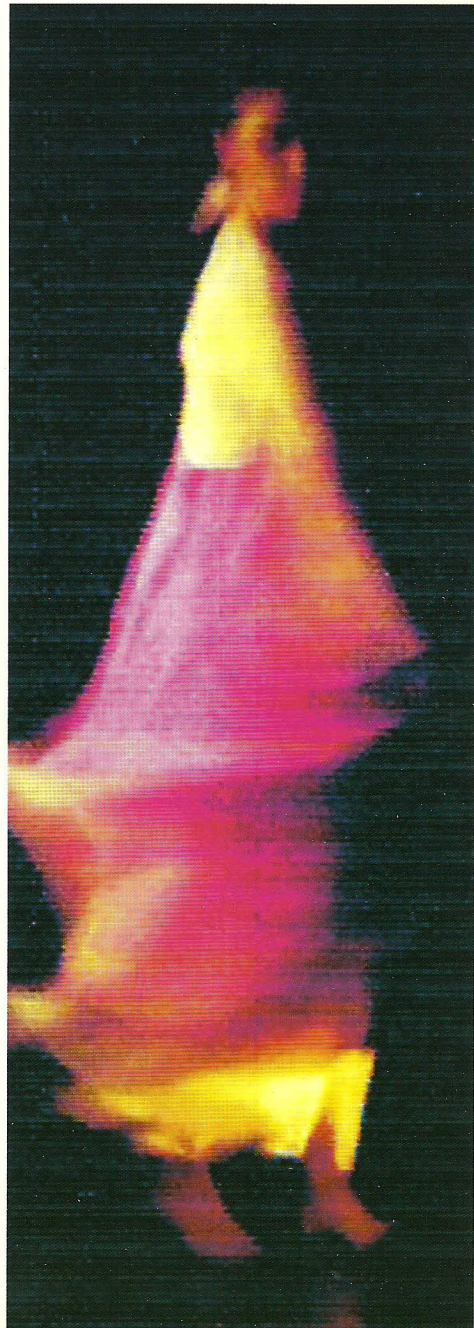
무대미술 : 김재한 의상 : 김호은

생음악 : 김윤호

출연 : 이현주

특별 출연 : 최준호(댄스팀 XTC 소속)

스텝 : 강모세, 안주희





안무 오숙례

- 신라대학교(구, 부산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 석사 취득
- 남원시립국악원 단원 역임
- 개인공연 <오숙례의 춤> 공연
- 현,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
오륙도 무용단 단장

하얀 이별

모진 비바람 후려쳐도 사력을 다하여 생살 아리듯 하루하루를 저며 내고 아려서 아리고 쓰러서 쓰러린다. 생의 씨앗으로 심장을 내뱉던 한숨소리 배고픔보다 더 허기지던 그리움 속에 버틴 고목이 고려장 되어.

오는 세월 훗날에 예수제하듯 하얀 이별을 차갑게 드리우고 슬픔이 만강 되어 산 넘어 바다 건너 강 건너 우주 끝 사바의 갈등이 있는 어디론가 밀려가는 하얀, 하얀 이별이여

무대 미술 : 황경호 의상 : 탐 음악편집 : 김갑용

출연 : 오숙례, 정진희, 황선희, 김진영, 윤은하, 이창규

우정 출연 : 최필선, 김복실, 박성화, 신서련 (오륙도 무용단 단원)

스텝 : 이성원(수석), 이화성